

사회복지의 도전과 대응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패러다임 개발-

글 / 하정화(Ph.D Student University of Michigan)

지난9월 21일부터 나흘간 서울에서 열린 제18차 아시아 태평양 사회복지사-교육자 대회에서는 22개국 1000여 명의 사회복지사 및 교육자들이 참석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당면 과제와 대응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대회 첫 날의 환영 만찬에서는 한국월드비전의 박종삼 회장님께서 “사회복지의 도전과 대응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패러다임 개발-(Challenges and Responses of Social Work: Toward New Asia-Pacific Paradigms)”이라는 제목으로 기조강연을 맡아주셨다. 박 회장님은 빠른 경제성장에 수반되는 빈부격차, 쓰나미로 인한 피해 등 아시아 지역이 당면한 과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고유의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개발없이는 동양의 사회복지 는 계속하여 서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역설하셨는데, 이 글에서는 강연의 주요 내용과 함의를 정리하고 앞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사회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생각해보기로 한다.

아시아 대륙의 빠른 경제성장 속에 가려진 빈곤 문제

아시아 대륙의 많은 국가들은 지난 반세기동안 전례없이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영국이 산업혁명 이후 일인당 국민총생산량(GNP)을 두배로 증가시키는 데 60년이 걸린 데 비하여, 아시아의 경제강국들은 10-20년만에 비슷한 성장을 이루어냈다. 그러나 삶의 질 면에서 아시아는 많은 도전들에 부딪히고 있다. 아동복지 실태만 보더라도 아시아는 현재 가장 빈곤 아동이 많은 곳이다. 아시아 전체 아동 인구 중 절반에 해당하는 6억의 아동들이 필요한 식량, 보건, 주거환경을 제공받지 못한 채 살고 있다. 이는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 빈곤 아동의 2배가 되는 숫자이기도 하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 자체가 빈곤한 지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높은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곳에서도 아동 빈곤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성장의 이득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아시아 고유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필요성: 쓰나미의 경험이 주는 교훈

아시아의 또 다른 취약점은 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 2002년의 SARS, 2004년 쓰나미와 같은 큰 위기가 닥쳤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제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엄청난 재앙을 가져다 준 쓰나미의 경험은 사회복지 관계자들에게 각성의 메시지를 던져 준다. 과연 쓰나미가 동남아를 휩쓸고 지나갔을 때 사회복지사 및 교육자들은 무엇을 했으며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주었는가. 위험 방지, 삶의 재건, 앞으로 비슷한 재해를 당했을 때를 대비한 정책 및 실천계획 수립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는가. 사회복지사 및 교육자들은 아시아 지역에 이러한 재해가 또 다시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하여 책임감있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지역 새로운 사회복지교육패러다임의 개발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아시아의 국가들은 각 국가 내부의 문제 뿐 아니라 세계 경제의 침체라든지, 국가간의 치열한 경쟁, 그리고 지역분쟁 등 지역적, 전세계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이, 쓰나미, HIV/AIDS, 아동 밀매 등의 새로운 문제들도 등장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이전에도 존재했던 실업, 가정파괴, 폭력, 빈곤 등의 문제와 더불어 아시아의 사회복지사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가져다 주었고, 아시아 사회복지사들은 이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응책의 일부는 다른 아시아 혹은 서구국가들로부터 전수 받을 수 있겠지만, 이와 함께 그 국가 고유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국제사회복지(international social work) 또한 아시아 개별국가들이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문제들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회복지분야의 비전과 목표

마지막으로 박종삼 회장님은 “사회복지의 도전과 대응 -아시

아 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패러다임 개발”이라는 주제하에 모인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 1) 21세기 아시아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의 비전은 무엇이며, 그 비전은 20세기의 비전과 어떻게 다른가?
- 2) 사회복지사로서, 혹은 사회복지 교육자로서, 우리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 3)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그러한 목표 설정을 통해 빈곤한 사람들의 삶의 질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 4)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 5) 이전의 수많은 시도에도 해결되지 않은 빈곤문제에 대응할 방책이 있는가?

이상으로 위 대회 기조연설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강연에서 지적되었듯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지난 반세기동안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어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

들이 빈곤의 늪에서 허덕이게 되었고, 우리는 이러한 빈곤문제 및 범국가적인 자연재해 혹은 질병의 확산 등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소홀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21세기의 급변하는 사회, 경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경제성장의 결실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분야는 앞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힘써 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나아가 그동안 사회복지체계의 많은 부분에 여과없이 적용되어 왔던 서구 사회의 시스템을 아시아 지역의 문화, 사회 경제적 토대 및 환경에 맞추어 어떻게 고유한 패러다임으로 승화시키는가 또한 앞으로 사회복지사 및 교육자들이 풀어야 할 숙제이다. 이번 아시아 태평양 사회복지사 교육자 대회는 이러한 도전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결책을 역내 국가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얻은 결과물을 토대로 앞으로 21세기 아시아지역 복지를 위한 사회복지분야의 비전과 목표, 정책 과제에 대한 많은 토론과 실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Pre-Conference II〉 Dr. Joseph Himle (University of Michigan)

정신질환 대상의 실증적 치료개입방법을 전달하기 위한 기술의 활용

글 / 박수정(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 전공)

Dr. Joseph Himle 교수는 강연을 통해 실증적 정신건강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어떤 일련의 ‘기술’의 필요성과 그 효과, 방법 등을 제시했다고 간단히 요약하고자 한다.

“나의 삶은 의미가 없어”라고 문제를 호소하는 클라이언트가 있다고 예를 들어보자. 분명 사회복지사는 어떠한 기술을 사용하여 그의 생각과 일상생활방식을 변화시키려 할 것이다. 그때, 클라이언트와 단순히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인지행동치료(CBT)라든지, 조금 더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사회복지사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기술에는 한계가 있고 제

한되어져 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들 대부분이 전통적인 방법론을 배워왔고, 또한 옛날 방법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줄곧 새로운 방법론들은 나오지만, 그것의 재교육에 대한 저항감이라든지, 거부감 등의 문제로 사실상 새로운 방법론의 보급은 쉽지 않다. 곧,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 ‘훈련’ 받은 사회복지사가 부족하다는 것. 그것이 그의 오후 강연 첫 머리에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대도시 보다 농촌이나 오지 등에서의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 현실적으로도 잘 훈련된 사회복지사는 부족할 뿐 아니라, 훈련받은 사회복지사들이 있다고 해도 그들 대부